

기록 기억

: 일본군 '위안부' 이야기, 다 듣지 못한 말들

Records Memories

: Stories of "Comfort Women," Untold Words

관람 안내

전시 기간 2019년 2월 25일 - 3월 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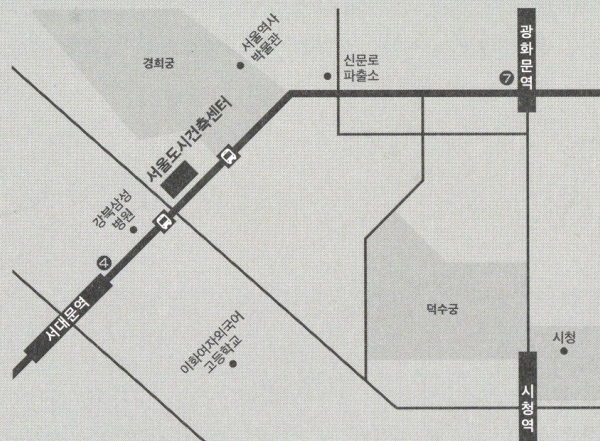
관람 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휴관일 없음)

관람 요금 무료

전시 장소 서울도시건축센터 (서울시 종로구 송월길 2)

전시 문의 02-2133-5057 / cw.archiving.proj@gmail.com

오시는 길



버스안내

- 마을버스 종로05, 간선 101 강북삼성병원 정류장 하차
- 간선버스 160, 260, 270, 271, 273, 370, 721 등을 이용한 후 서울역사박물관·경희궁앞 정류장 하차

지하철안내

- 서대문역 4번 출구 강북삼성병원, 서울역사박물관, 경희궁공원 방면 300m 이내. 도보 5분 거리
- 광화문역 7번 출구 서울역사박물관, 경희궁공원, 신문로파출소 방면 700m 이내. 도보 10분 거리

주차안내

- 주차는 인근 서울역사박물관 주차장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주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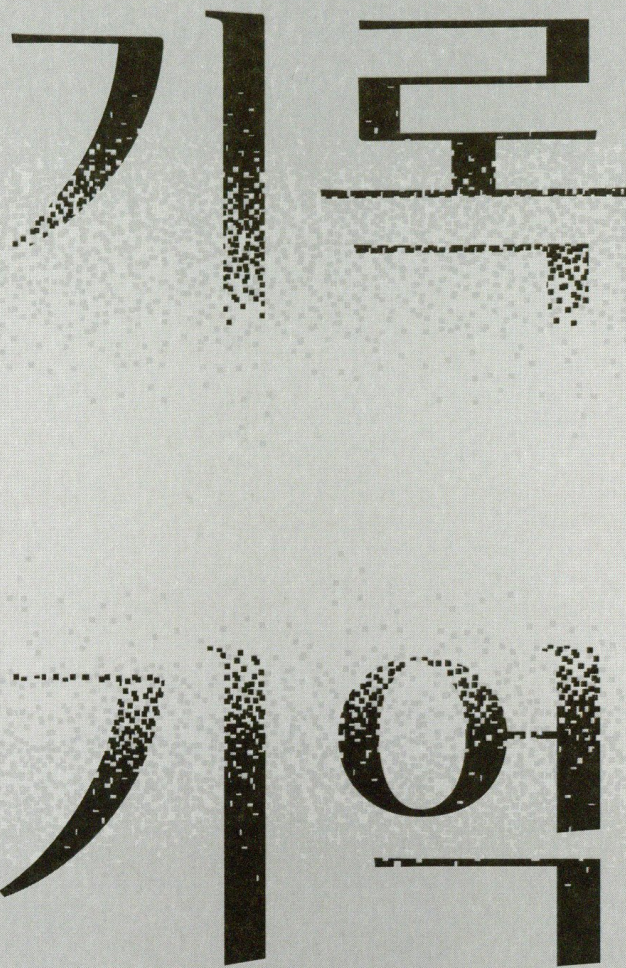
주관 서울대학교 정진성 연구팀

I·SEOUL·U

너와 나의 서울

기록 기억

: 일본군 '위안부' 이야기,
다 듣지 못한 말들



Records Memories

: Stories of "Comfort Women,"
Untold Words

2019. 2. 25. — 3. 20. 서울도시건축센터

증언과 문서, 사진, 영상, 그리고 우리의 기억으로 전하는 ‘위안부’ 피해여성 이야기

1932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은 전쟁을 일으켰던 아시아-태평양 모든 지역에 일본군 위안소를 설치했고, 식민지, 점령지, 일본의 여성들을 ‘위안부’로 끌고 갔다. 많은 여성들이 전쟁터에서 죽었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누구의 공감이나 위로를 받지 못한 채 삶을 이어갔다. 이들의 이야기는 거의 반세기가 지나서야 세상에 드러날 수 있었다.

그리고 다시 30여 년이 흘렀다. 피해생존자 대부분은 여전히 피해자로 남았다. 우리들은 피해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 왔는가. 어떤 이야기들이 말해졌고, 어떤 말들을 듣지 못했을까.

이번 전시 《기록 기억 : 일본군 ‘위안부’ 이야기, 다 듣지 못한 말들》에서는 각기 다른 지역의 네 가지 일본군 ‘위안부’ 이야기를 보여 준다. 첫 번째는 사진과 문서로만 남은 이들의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살아남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죽은 이들의 이야기이며, 세 번째는 오래된 명부 속 이름에서 길어 올린 한 여성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은 ‘위안부’ 여성을 기억하고 이를 기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기록들은 피해자들의 증언, 그들의 삶과 마주친 다양한 이들의 기억과 연결되어 있다. 어떻게 들을 것인가,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그 기억을 누구에게 전할 것인가는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과제이다.

Testimonies, documents, photographs, film footage and stories of “comfort women” victims delivered through our memories

From 1932 to 1945, the Japanese Military installed comfort stations throughout the Asia-Pacific region where it had initiated war, and mobilized women from colonized nations, occupied areas and Japan to use as “comfort women.” Many “comfort women” lost their lives in the war. Even survivors continued their lives with scars with which no one would empathize. Only half a century after the war, stories of these women could be known to the world.

And it has been 30 years since even then. Most survivors still remain as victims. Have we listened to their full stories? Which stories have been told, and which words have not been heard?

The exhibition *Records Memories : Stories of “Comfort Women,” Untold Words* tells four stories of women from different regions. The first story is of those who had disappeared with only their vestiges left in photographs and documents. The second story is about memories of the dead retained by the living. The third story is about a woman whose own history was disentangled from an old passenger list. The last story is about those who have remembered and recorded their memories of “comfort wom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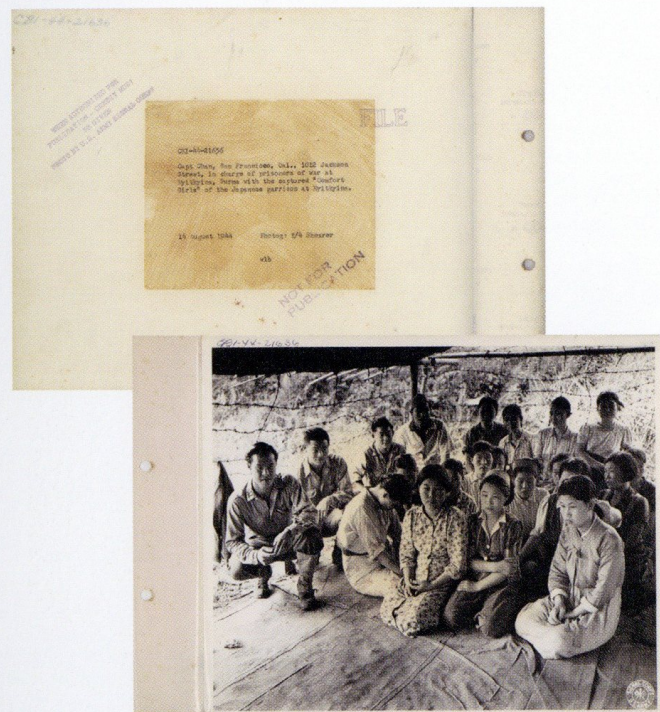
Records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are connected with the testimonies of survivors and the memories of various agents who have passed by or resonated with their lives. How should we listen, what should we remember, and to whom should we deliver their memories? Such inquiries still remain as unsolved questions that we should continue to endeavor.

미치나의 조선인 '위안부'

Korean "comfort women" in Myitkyina

첫 번째는 버마 북부의 작은 도시 미치나에서 일본군 '위안부' 생활을 하다가 연합군의 포로가 된 여성들의 이야기이다.

조선 각지에서 동원되어 머나먼 나라의 위안소로 보내진 이들은 일본군이 전투에서 패했을 때 연합군에게 붙잡혔다. 미국 국립 문서기록관리청에서 찾아낸 사진과 문서에는 이 여성들의 당시 모습과 삶에 대한 기록이 생생하게 남아있다. 하지만 이들 중 우리 앞에 선 증언자는 아무도 없다.



버마 미치나 '위안부' 사진, 1944

텅충, 송산 전투와 '위안부'

Battle of Tengchong and Songshan and "comfort women"

두 번째는 버마와의 접경지인 중국 윈난성 송산과 텅충의 전장에서 살아갔던 '위안부'의 삶에 대한 이야기이다.

연합군과 일본군의 격렬한 전투가 벌어진 최전선에서 많은 '위안부'들이 사망했고, 탈출하거나 살아남은 이들은 연합군에게 구출되었다. 이곳의 생존자 박영심은 힘겨운 증언을 통해 전장 속 여성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남겼다.



김재영 <박영심을 따라 걷다>, 2019

‘트럭섬’ 사진이 말을 걸다 : 이복순과 축섬의 조선인 ‘위안부’

Photo of “Truk” Island spoke to us: Lee Bok-soon and Korean “comfort women” in the Chuuk Islands

세 번째는 아시아-태평양 전쟁 시기 중부태평양의 축섬에서 ‘위안부’ 생활을 강요받았던,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 돌아온 여성들의 이야기이다.

축섬에서 떠나는 배에 오른 사람들의 이름을 적은 명부, 그리고 승선을 준비하는 여성들을 찍은 몇 장의 사진은 이복순이라는 한 여성을 불러냈다. 이복순의 증언,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관련 문서들의 추적을 통해 흩어져 있던 기록들은 ‘위안부’ 피해여성의 이야기로 복원되었다.

ROSTER OF JAPANESE, KOREAN AND OKINAWAN PERSONNEL EVACUATED FROM TRUK. H.B.M.T. JAPANESE ISLAND.				
ARMY	56			
NAVY	5			
GUARD	7			
JAP CIVILIAN	11			
OKINAWAN	10			
KOREAN	249			
TOTAL		368		

HASHIMOTO, ICHIRO	LABORER	OFFICE	WOMAN	KUJIRINAKO, KOREA	
HASHIMOTO, TOSIYUKI	LABORER	EAST BRANCHES	OFFICE	WOMAN	NA 001 NAKAGAWA, DAIKYO-JU
ISHIOKA, SEIKO	LABORER	EAST BRANCHES	OFFICE	WOMAN	NA 002 NAKAGAWA, DAIKYO-JU
KANEHITO, HIDEO	LABORER	EAST BRANCHES	OFFICE	WOMAN	NA 003 NAKAGAWA, DAIKYO-JU
KANEHITO, JUNZO	LABORER	EAST BRANCHES	OFFICE	WOMAN	NA 004 NAKAGAWA, DAIKYO-JU
KANEHITO, JUNZO	LABORER	EAST BRANCHES	OFFICE	WOMAN	NA 005 NAKAGAWA, DAIKYO-JU
KANEHITO, JUNZO	LABORER	EAST BRANCHES	OFFICE	WOMAN	NA 006 NAKAGAWA, DAIKYO-JU
KANEHITO, JUNZO	LABORER	EAST BRANCHES	OFFICE	WOMAN	NA 007 NAKAGAWA, DAIKYO-JU
KANEHITO, JUNZO	LABORER	EAST BRANCHES	OFFICE	WOMAN	NA 008 NAKAGAWA, DAIKYO-JU
KANEHITO, JUNZO	LABORER	EAST BRANCHES	OFFICE	WOMAN	NA 009 NAKAGAWA, DAIKYO-JU
KANEHITO, JUNZO	LABORER	EAST BRANCHES	OFFICE	WOMAN	NA 010 NAKAGAWA, DAIKYO-JU

「축섬 승선 민간인 명부」, 1946

오кина와의 ‘위안부’와 전쟁의 상흔

“Comfort women” in Okinawa and the scars of war

네 번째는 일본군 ‘위안부’의 최초 증언자인 배봉기와 그를 기억하는 오кина와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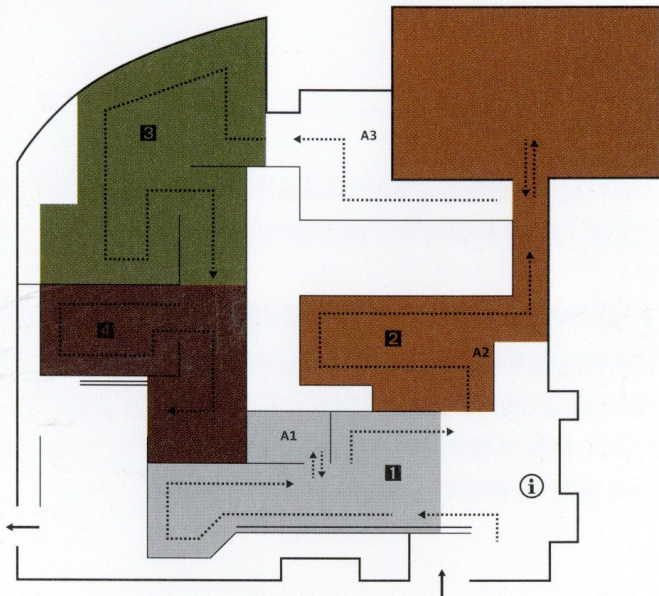
오кина와의 위안소에 끌려가 전투의 한 가운데에 던져진 배봉기는 전쟁이 끝나고도 그곳에 남았다. 아무것도 없던 그녀에게 남겨진 삶은 전쟁처럼 치열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하지만 그 삶과 고통에 공명하고 그녀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이어 간 것은 제2의 증언자가 된 오кина와의 주민들이었다.



오кина와의 배봉기

전시 동선

Exhibition Map



— 프롤로그 Prologue

- 1** 미치나의 조선인 '위안부'
Korean "comfort women" in Myitkyina
- A1** 최찬숙 <밋찌나>
CHOI Chan Sook <Myitkyina>
- 2** 텅충, 송산 전투와 '위안부'
Battle of Tengchong and Songshan and "comfort women"
- A2** 기훈센 <안위>
Kihunsen <anwe>
- A3** 조소희 <의자>
CHO So Hee <A Chair>
- 3** '트럭섬' 사진이 말을 걸다: 이복순과 축섬의 조선인 '위안부'
Photo of "Truk" Island spoke to us : Lee Bok-soon and Korean "comfort women" in the Chuuk Islands
- 4** 오키나와의 '위안부'와 전쟁의 상흔
"Comfort women" in Okinawa and the scars of war

= 에필로그 Epilogue

전시 연계 프로그램 :

다 하지 못한 말들, 다 듣지 못한 말들

일본군 '위안부'였던 여성들의 삶과 고통에 귀 기울이고, 이를 다른 이들에게 전함으로써 새로운 기억을 만들고자 했던 제2의 증언자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일시 3월 2일 - 3월 16일 오후 2시 (총 4회)

장소 서울시건축센터 2층 세미나실

특별 대담

박원순-정진성에게 듣는 '2000년 여성법정' 이야기

일시 3월 3일(일) 오후 2시

2000년 도쿄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에 각각 남측 대표검사와 한국위원회 부대표로 참여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정진성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부터 여성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동원한 일본의 전쟁범죄 단죄를 위한 시민법정에 대해 이야기를 듣는다.

북으로 돌아간 '위안부' 그리고 박영심 이야기

일시 3월 2일(토) 오후 2시 | 강연자 김영

재일조선인 여성으로서 북한의 '위안부'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기록하며, 고민해 온 르포라이터 김영에게 북에서 여생을 살아간 '위안부'들 그리고 그 중 한 명인 박영심의 이야기를 듣는다.

희움일본군'위안부'역사관과 이복순 이야기

일시 3월 9일(토) 오후 2시 | 강연자 이인순

故 김순악 할머니의 기탁금을 씨앗기금으로 삼아 2015년 대구에 개관한 희움일본군'위안부'역사관 관장 이인순에게 역사관 건립과 축섬에서의 '위안부' 생활 후 대구로 돌아온 이복순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다.

오키나와의 '위안부' 그리고 배봉기 이야기

일시 3월 16일(토) 오후 2시 | 강연자 홍윤신

오키나와의 '위안부'와 위안소를 연구했고, 오키나와 미야코섬에 '위안부' 추모비 건립을 주도했던 홍윤신에게 오키나와 주민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배봉기와 오키나와 '위안부'들의 이야기를 듣는다.